

# 트럼프 “우리가 이겼다…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끝낼 것”

켄터키 연설서 이란 전쟁 성과 강조  
“1시간 만에 끝나…임무 마무리해야”  
첫 몇시간 전비 16.7조 원 넘게 사용  
군사장비·인력 증강 등 비용은 빠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뒤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에 탑승해 있다. 작은 사진은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은 오만 살랄라의 석유 저장시설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 AP·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면서도 임무를 마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 히브런을 찾아 연설하면서 이란 전쟁의 성과를 설명하다가 “우리가 이겼다”고 거듭 말한 뒤 “시작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사실상 파괴했다고도 했다. 미국이 2년마다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매체 약시 오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공격 표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면서 “내가 끝나길 원할 때 언제든지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시장과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미국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

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 첫 몇시간 쓴 비용이 113억 달러(약 16조7000억 원)가 넘는다는 추정치를 의회에 제시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이 같은 날 보도했다.

미국 매체들은 전날 열린 전쟁부의 비공개 연방상원 브리핑 내용을 알고 있는 취재원들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이 추산에는 일부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총 산정 비용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8일의 첫 공습에 앞서 군사 장비와 인력을 증강하는 데 든 비용 등 여러 항목이 여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NYT와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쟁부 관계자들의 의회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전쟁 첫 이틀간 미군이 쓴 탄약이 56억 달러어치라고 보도했다. 또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 작전 초기 100시간 동안 쓴 비용을 37억1000만 달러로 추정했다.

NYT는 여러 추산을 비교하면서 당초 공개된 것보다 탄약 소모량이 훨씬 더 많으며

소모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장대한 분노’ 작전 초기에 사용된 무기에는 AGM-154 활공 폭탄이 포함돼 있다. 이 폭탄의 가격은 한 발당 57만8000달러(약 8억5000만 원)에서 83만6000달러(약 12억4000만 원) 수준이며, 미 해군은 거의 20년 전에 이 폭탄 3000발을 구매했다.

그 후 미군은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 이보다 훨씬 저렴한 폭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JDAM의 가장 작은 탄두는 한 발에 약 1000달러이며, 유도 장치는 약 3만8000달러(5600만 원) 수준이다. 연합뉴스

## 요동치는 유가에…IEA, 사상 최대 4억 배럴 비축유 방출 결정

각국 만장일치로 시장 공급 합의  
미국 1.7억 배럴…한국도 동참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

IEA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IEA 32개 회원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비상 비축유 중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오늘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IEA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방해받아 현재 원유, 석유제품 수출량이 분쟁 전의 10%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파티 비를 사무총장은 “현재 직면한 석유 시장 도전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기에 IEA 회원국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비상 공동 대응으로 화답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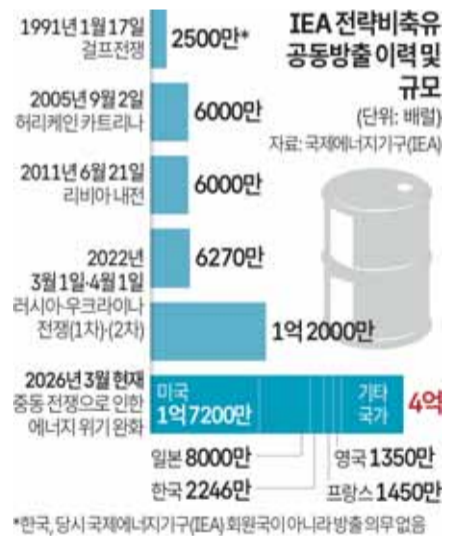
IEA에 따르면 전략비축유는 각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간에 걸쳐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일부 국가는 추가 비상조치를 통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

스트리아, 일본은 자국이 보유한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민·관 석유 비축량에서 약 8000만 배럴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영국은 이날 IEA 공식 발표 이후 1350만 배럴을, 한국 역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프랑스도 145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도 전략 비축유 1억72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에너지부의 이 같은 방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란 전쟁 한창인데…美 ‘무역법 301조 관세’ 착수

USTR,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 대상  
“특정국가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 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

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

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기존 미국 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 및 확장을 방해한다”며 “많은 분야에서 미국은 상당한 국내 생산능력을 상실하거나 외국 경쟁사들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